

고대 중국어의 초점 유형 및 초점 표현 방식*

박 향 란**

<目次>

I. 머리말	III. 초점의 표현 방식
II. 초점의 유형	1. 초점표지
1. 서술어초점	2. 어순
2. 논항초점	3. 생략
3. 문장초점	IV. 맺음말

I. 머리말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문장 성분을 조직한다. 문장은 대개 화자가 청자도 안다고 가정하는 주어진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 정보구조를 구현한다.¹⁾ 이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는 화제 혹은 배경, 전제로 제시되고 이들을 제외한 부분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113).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초빙교수

1)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개념은 프라그마학파의 기능문법 전통을 이어 받아 Halliday(1967)가 처음 제안하였고 chafe(1976), Hajicová(1983), Vallduví(1990), Lambrecht(1994)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들은 정보를 대개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문장에서 테마-레마(theme-rheme), 화제-평언(topic-comment), 화제-초점(topic-focus), 전제-초점(presupposition-focus), 바탕-초점(ground-focus) 등에 대응되며 조직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박철우(2003)등 참조.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초점이 된다. 즉 초점은 화제 혹은 바탕, 전제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며 문장에서 화자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초점은 문장에서 강세, 첨가, 어순, 생략 등의 다양한 유표적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 구어에서는 주로 강세를 동반하지만 문어에서는 초점표지를 부가하거나 어순 이동, 생략과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고대 중국어는 선진시기 언어를 기록한 문언으로 강세와 같은 음운적 요소는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기 힘든 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며 당시의 언어를 기록한 문헌 역시 초점표지나 어순, 생략과 같은 유표적 수단을 통해 초점을 표현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대 중국어의 초점 표현 방식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동안 고대 중국어 초점 연구는 강조라는 화용적 의미 개념을 통해 주로 논의되었고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²⁾ 본고는 선진시기 문헌 중에서 대화체의 비중이 높은 《論語》와 《孟子》를 중심으로 초점의 유형 및 그 통사적 실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학계에서 정의되는 초점의 유형을 분류해보고 Lambrecht (1994)에 근거하여 고대 중국어의 초점 유형에 대해 분석해본다. 3장에서는 초점의 실현 방법인 초점표지와 어순, 생략에 대해 논의해본다. 4장은 결론 부분이다.

II. 초점의 유형

초점을 구분짓는 개념 및 용어의 사용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문미초점(end focus)과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의 두 유형으로 나

2) 洪波(2006), 徐江勝(2006) 등 참조.

눌 수 있다.

문미초점은 자연초점,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으로도 불리며 문장의 서술어 부분에 초점이 놓이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청자가 알 것으로 추측되는 정보를 문두에 배치하고, 청자가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정보를 문미에 놓는다. 이는 정보 가치가 높고 복잡하고 긴 문법 요소들을 문장 끝에 놓아 청자의 기억 부담을 줄이려는 문미 중점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SVO어순은 대부분 문미의 서술어에 초점이 온다.

대조초점은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으로도 불리며 잠재적인 대조 대상 가운데 부각되는 성분을 가리킨다.³⁾ 예컨대 ‘他是昨天下午碰到小王的’에서 ‘是’ 뒤의 ‘昨天下午’는 대조초점으로 강세를 받는다. 또는 ‘誰是小王?’처럼 여러 대상 중에서 누군지를 확인하는 지시 의문사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문미초점은 지시적으로 선행 담화로부터 복원될 수 없는 신정보이지만 대조초점은 맥락적으로 서술어와 관련있는 대상들을 총망라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전에 말해진 것이나 예측 가능한 것과의 대비로 인해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고 주어진 정보일 수도 있다.⁴⁾

- 3) 중국어학계에서 대조초점은 실상 확인초점과 동일한 개념을 가리켰다. 예컨대 方梅(1995), 劉丹青·徐烈炯(1998)는 對比焦點, 周士宏(2009)은 識別焦點, 袁毓林(2003), 張志恒(2012)은 確認焦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례(2019)는 중국어의 초점을 확인초점과 대조초점을 구분하여 정보초점, 확인초점, 대조초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정보초점은 [-대조성]과 [-총망라성], 확인초점은 [-대조성]과 [+총망라성], 대조초점은 [+대조성]과 [+총망라성]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확인초점 역시 잠재적인 대조 대상 중에서 선택된다는 점에서 대조초점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기존의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 4) 전영철(2006)은 화제와 초점을 지시적 주어집성이 아니라 관계적 주어집성에 입각하여 정의하였다. 이전 담화에 출현했거나 고유명사 혹은 총칭명사의 경우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것으로 한정성(definiteness), 특정성(specificity), 총칭성(genericity)의 자질을 가지며 지시적 구정보에 해당된다. 지시적 신정보는 청자가 모르는 것으로 화자가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의식에 처음 소개된다. 하지만 지시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라도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아래 A의 커피는 이전 담화에 이미 소개되어 지시적으로

한편 Lambrecht(1994/2000:291~313)는 초점구조를 초점이 오는 위치에 따라 서술어초점 구조와 논항초점 구조, 문장초점 구조로 분류하였다.⁵⁾ 서술어초점 구조는 신정보를 전달하는 서술어 부분에 초점이 오는 것으로 문미초점에 상응한다. 논항초점 구조는 대조 혹은 확인 초점과 대응되며 위치에 관계없이 논항인 명사구에 초점이 온다. 문장초점 구조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이자 초점이 된다. 앞의 두 초점구조는 어떤 실체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에 해당된다. 반면 문장초점 구조는 확정된 어떤 대상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이나 사태를 단언하거나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단언문(thetic sentence)에 속한다.⁶⁾ 이들 초점의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언문	서술어초점	문미초점/자연초점/정보초점
	논항초점	확인초점/대조초점
단언문	문장초점	

아래에서는 Lambrecht이 분류한 초점구조의 예시와 설명에 근거하여 고대 중국어의 초점을 분석해본다.⁷⁾

는 구정보이나 내가 마시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정보이다. 따라서 초점은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일 수 있다. Q: 커피와 녹차가 있는데 뭘 마실래요? A: 커피를 마실게요.

- 5) Lambrecht(1994)는 초점이 실현되는 범위에 따라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으로 다시 나누었다. 좁은 초점은 문장 중 하나의 논항 성분을 초점으로 하는 논항초점 구조를 가리키고 넓은 초점은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문장초점 구조와 서술어 부분이 초점이 되는 서술어초점 구조를 가리킨다.
- 6) 전영철(2013)은 서술어초점 구조는 화제-초점, 논항초점 구조는 초점-화제의 구성으로 화제와 초점의 배열 순서는 서로 정반대이지만 이분법적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정언문으로 처리하였다. 반면 문장초점 구조는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비이분적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의 두 초점구조와는 구별되며 제언문(presentational sentence)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제언문이라는 용어가 존재문의 일종인 제시문과 혼용될 수 있어 본고에서는 단언문으로 명명하였다.

1. 서술어초점

서술어초점 구조는 이른바 화제-평언 구조로 가장 무표적인 정보구조에 속한다. 화제는 화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평언은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익숙한 정보인 화제를 문두에 배치하고 새로운 정보인 초점을 문미에 배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즉 문두에 정보가치가 적은 구정보인 화제가 배치되고 뒤따르는 평언 부분에 정보가치가 큰 신정보이자 초점이 온다.

(1) Q: What happened to your car?

A: [My car]_{TOP} [broke DOWN]_{FOC}

예문(1)에서 ‘My car’는 앞의 질문에서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이므로 한정사 ‘My’와 결합되어 화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어 ‘broke DOWN’에 놓이는데 대문자로 표시된 ‘DOWN’에 강세가 주어진다.

고대 중국어 역시 SVO가 무표적 어순이라고 볼 때 문미에 위치하는 VO부분에 초점이 온다.

(2) 定公問：“君使臣，臣事君，如之何？”孔子對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論語·八佾)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을 어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는 예로써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써 한다.

7) 이밖에 Gundel(1999)은 초점을 심리초점, 의미초점, 대비초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심리초점은 화자와 청자의 주의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실상 화제를 가리키며 의미초점은 새로운 정보를 진술하는 것으로 특수 의문문에 답하는 부분이고 대조초점은 둘 이상의 대비항을 갖는다.

예문(2)은 정공이 임금과 신하 간의 도리에 묻자 공자가 답하는 내용으로 앞 질문에서 제시된 ‘君使臣’, ‘臣事君’이 뒷 문장의 화제가 되고 서술어 부분인 ‘以禮’, ‘以忠’이 새로운 정보이자 초점이 된다.

고대 중국어는 주어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문장 앞의 화제가 앞에서 이미 제시된 것으로 복원가능하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3) 曰：“周公知其將畔而使之與？”曰：“不知也。”(公孫丑下)

(陳賈가) 물었다. “주공은 그가 장차 배반할 것을 알고도 시키셨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알지 못했다.”

예문(3)에서 ‘不知’앞에는 앞 문장에 출현하는 구정보인 ‘周公’이 생략되었다. 뿐만 아니라 ‘不知’뒤의 목적어도 앞 문장에 나타나는 전제로 생략되었다. 이는 모두 중복으로 인해 정보가치가 떨어지므로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위해 생략된 것이다.⁸⁾

2. 논항초점

논항초점 구조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와 같이 논항이 되는 위치에 초점이 할당된다. 이때 논항은 명제의 비-서술적 표현으로 장소, 시간,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4) Q: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A: [My CAR]_{FOC} [broke down]_{TOP}.

예문(4)에서 화자는 자신의 ‘motorcycle’가 고장났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CAR’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때 잘못된 정보를

8) 한편 예문(2)의 ‘君使臣’, ‘臣事君’은 구정보이지만 생략할 수는 없다. 백은희(2005)에 따르면 연결부(본고의 화제)가 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고 각각에 대해 신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없다.

수정하여 대체된 신정보인 ‘CAR’에 강세가 오며 대문자로 표시된다.

고대 중국어에서 논항초점 구조는 두 개 논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나타난다. 논항초점 구조의 초점은 반드시 문장에서 처음 제시되는 신정보일 필요는 없으며 이미 언급된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명제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의해 신정보로 인식된다.

(5) 任人有問屋廬子曰：“禮與食孰重？”曰：“禮重。”(告子下)

임나라 사람이 屋廬子에게 물었다. “예와 음식 중에 어느 것이 중한가요?” 그가 대답했다. “예가 중하다.”

예문(5)에서 ‘禮’와 ‘食’은 서로 비교·대조되는 대상으로 지시적으로는 앞의 질문에 등장한 구정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두 대상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와 같은 질문에서 ‘禮’가 선택됨으로써 새로운 정보로 초점이 된다. 논항초점 구조는 어떤 비교 대상이 없는 의문문에서도 볼 수 있다.

(6) 卒然問曰，天下惡乎定，吾對曰，定於一。孰能一之？對曰，不嗜殺人者能一之。(梁惠王上)

갑자기 물었다. “천하는 어디에서 정해지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한곳에 정해질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누가 통일시킬까요?” 내가 대답했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통일시킬 것입니다.”

예문(6)에서 의문사 ‘孰’에 해당되는 대답으로 ‘不嗜殺人者’라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며 초점이 된다. 나머지 부분은 배경이자 전제가 된다.

3. 문장초점

문장초점 구조는 담화상 어떤 전제도 없이 새로운 사건이나 사태를 알려준다. 따라서 문장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된다. 문

장초점 구조는 새로운 사건이나 뉴스를 알려주는 것으로 뉴스문(news-sentence) 혹은 사건-보고문(event-reporting)과 제시문(presentational sentence)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새로운 지시체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는 문장이다.

(7) Q: What happened?

A: [My CAR broke down]_{FOC}

예문(7)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 ‘My CAR broke down’은 앞 문장에서 주어진 정보에 해당되는 어떤 배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신정보이자 초점이 된다. 동일한 명제 의미를 전달하지만 예문(1)은 서술어초점 구조로 문미에 강세가 오고 문장초점 구조는 문두주어인 ‘My CAR’에 강세가 오는 음율전도(prosodic inversion)현상을 보인다.

고대 중국어에서 담화나 문맥적 배경없이 새로운 사건의 출현을 보고하는 경우 문장초점 구조에 해당된다.

(8) 滕文公問曰：“齊人將築薛，吾甚恐，如之何則可？”（梁惠王下）

등문공이 물었다. “제나라 사람이 장차 설땅에 성을 쌓으려 합니다. 내가 매우 두려우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문(8)은 장의 첫 절로 제나라 사람이 설땅에 성을 쌓는다는 사건은 단락에 처음 출현한다. 여기서 ‘齊人’은 문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실체로 화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어로 번역될 때 정언문에 쓰이는 화제표지 ‘-은/는’이 아니라 ‘-가’를 사용한다.

문장초점 구조의 다른 하위 유형으로 제시문은 들 수 있다. 제시문은 청자의 인식 속에 비활성화(inactive) 상태인 새로운 지시체(referent)를 담화에 도입한다. 영어의 ‘there’구문은 전형적인 제시문으로 여겨지며 단락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 새로운 사물의 출현을 알려준다.

(9) (a) there was a old oak tree in the garden.

정원에는 오래된 오크 나무가 있었다.

(b) there is a fly on my soup.

내 스프에 파리가 있다.

이때 화자는 청자가 모르고 있다고 가정되는 정보를 전달하므로 서술어 뒤에 새롭게 출현하는 대상은 ‘the’나 소유격, 지시어 등 한정성이 강한 명사구가 올 수 없으며 ‘a old oak tree’, ‘a fly’와 같이 비한정 명사구가 온다.⁹⁾ 이들은 강한 초점 강세를 갖고 장소 배경을 나타내는 ‘in the garden’, ‘on my soup’은 약한 강세를 가진다.

‘there’구문과 유사한 것으로 고대 중국어에는 존재를 나타내는 ‘有’구문이 있다.¹⁰⁾ ‘有’구문 역시 단락의 첫 부분에서 주로 출현하여 새로운 화두로 제시된다. 어떤 관련된 전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새로운 정보인 초점이 된다.

(10) 今有璞玉於此, 雖萬鎰, 必使玉人雕琢之. (梁惠王下)

지금 여기 벽옥이 있는데 비록 만일이라도 옥인에게 시켜서 그것을 깎아야 한다.

(11)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裏,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梁惠王下)

제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정원이 사방 칠십리라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책에 있습니다.”

예문(10)에서 동사 ‘有’ 뒤에 오는 목적어 ‘璞’은 어떤 한정사와도 결합

9) 예문(9)와 설명은 정승영(2003:130)을 참조

10)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96:476~485)은 현대 중국어의 존재동사 ‘有’와 ‘在’나 자세동사로 구성된 존재문은 어떤 소재지에 무언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제시문으로 보았다. 이때 有자문은 처소구 이외에 다른 실체를 소유관계를 맺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have’와 성질이 유사하다. 이밖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 역시 실체를 담화 속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되지 않는다. 문두와 문미에는 각각 시간과 장소 배경이 나타나며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나타내며 청자에게 앞으로 전개될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예문(11)은 ‘有’의 목적어 성분인 ‘文王之囿方七十裏’이 문두로 도치되었다. 영어가 주어자리에 반드시 ‘there’라는 가주어를 할당한 것과 달리 고대 중국어는 문법적 주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역시 문맥에서 처음으로 발화되는 내용으로 문왕의 정원이라는 화제에 대한 진술이라기 보다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Ⅲ. 초점의 표현 방식

1. 초점표지

화자는 초점 성분을 청자의 의식에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하여 초점표지(focus marker)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대개 ‘只’, ‘是’, ‘還’, ‘也’, ‘連’ 등을 초점표지로 간주한다.¹¹⁾ 方梅(1995)는 초점표지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실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단지 뒷 성분이 초점임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둘째, 그 자체로 대비 강세를 갖지 않고 뒷 성분이 강세를 가진다. 셋째, 문장에서 기본 성분이 아니라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는 이 기준에 따라 음운표지인 강세와 ‘是’, ‘連’만이 초점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溫鎖林(2005)은 대조초점 앞에 ‘是’, ‘連’, ‘就’, ‘只’를 놓는 성분 부가법과 ‘都’, ‘也’와 같은 허사로 구성된 고정형식으로 구분한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초점 앞에 부가되는 초점표지로 ‘唯/惟’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영어의 ‘only’와 마찬가지로 한정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다.¹²⁾ ‘唯/惟’는 ‘是’, ‘之’와 같은 후치 초점표지와 결합하여 ‘唯/惟

11) 劉丹青·徐烈炯(1998), 董秀芳(2003), 이범열(2010) 등 참조.

+명사+是/之+동사 구조'를 구성하기도 한다.

(12) 父母唯其疾之憂. (論語·爲政)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13) 余雖與晉出入, 余惟利是視. (左傳·成公十三年)

나는 비록 진나라와 왕래하지만 나는 오직 이익만을 살핀다.

(14) 吾以子爲異之間, 曾由與求之間. (論語·先進)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묻는 줄 알았는데 원래 증유와 염구를 물었구나.

예문(12)의 ‘其疾’, (13)의 ‘利’, (14)의 ‘由, 求’는 다른 대조 대상과 비교하여 강조되는 대상으로 대조초점을 나타낸다. 예문(12~13)을 보면 ‘唯/惟’의 삽입으로 인해 뒤에 오는 목적어의 단일성 혹은 배타성의 의미가 강화된다. 하지만 예문(14)와 같이 전치된 목적어 앞에 반드시 ‘唯/惟’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순수하게 초점기능만을 갖는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때 ‘是’, ‘之’가 목적어를 서술어 앞으로 전치시키는 기능을 하며 앞의 목적어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강조되는 초점임을 나타내는 초점 표지이다.¹³⁾ 특히 주어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전치된 목적어는 주어 뒤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목적어가 문두인 주어 앞에 오면 화제화 되는 것과 달리 주어 뒤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면 유표적으로 대조초점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다.¹⁴⁾

12) Pullyblank(1995/2005:297) 참조.

13) 이때 나타나는 ‘是’, ‘之’의 품사적 성격에 대해서 앞에 목적어를 다시 재지시하는 대명사로 보는 견해와 목적어 전치 기능을 갖는 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劉志剛(2008) 참조. 문법화의 관점에서 어휘적 의미를 가진 지시사에서 조사로 변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사로 보면 통사적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한정구조로 보아 문장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약해진다. 때문에 재지시로 인한 강조의미를 갖는 대명사로 보는 견해가 비교적 타당하다.

14) 김종호(2004)는 현대 중국어에서 受事+施事+VP는 무표적인 구문이지만 施事+受事+VP는 목적어를 초점화하는 유표적인 구문으로 보았다.

이런 구조는 영어의 ‘it-that/who’로 구성되는 구문이나 현대 중국어 ‘是-的’구문과 같은 분열문(cleft construction)과 비교될 수 있다. 분열문은 화자가 초점이 되는 성분을 다른 성분과 분리하여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문으로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논항이 초점화된다. 또 ‘是-的’구문에서 초점표지 ‘是’는 주어 앞 또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해야 하고,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는 출현할 수 없다.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我昨天下午碰到的是小王’와 같이 준분열문의 형태를 띤다. 반면 고대 중국어에서 ‘是’, ‘之’가 강조하는 논항은 목적어에만 한정되고 목적어가 이들 표지 앞에 출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어순

고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SVO어순을 유지하지만 의문문 및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이면 SOV어순을 갖는다.¹⁵⁾ 이는 당시의 문법적 요구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어순 이동은 초점과 같은 정보가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앞서 목적어가 서술어 앞으로 전치되는 경우처럼 문장 성분을 이동함으로써 대조초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외에도 고대 중국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도치, 목적어의 전치, 개사구의 어순 변이 등이 나타난다.¹⁶⁾

먼저 의문문이나 감탄문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서술어 의미를 돌출시키거나 강조하는 경우로 신정보를 먼저 제공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작용한 것이다.¹⁷⁾ 이때 문미로 이동된 성분은

15) 이를 상고시기 SOV어순의 잔재로 보거나 혹은 초점화를 위해 문장의 앞쪽 즉 왼쪽으로 이동하는 화용적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대립된다.

16) 이영호(2018)는 관형어가 피수식어인 명사뒤로 후치되면 돌출되는 느낌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선진시기에는 수량사가 명사 뒤에 배치되는 경향이 비율적으로 우세하여 이를 당시의 정상적인 어순으로 보아 이들이 반드시 정보의 가치로 인해 어순을 바꾸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

17) 周士宏(2010) 참조.

구정보로 대화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이나 사건을 가리킨다.

(15) 死矣, 盆成括! (盡心上)

죽겠구나! 盆成括은

(16) 曰, 何哉, 君所謂踰者? (梁惠王下)

(樂正子)가 물었다. “무엇입니까? 임금께서 말한 지나쳤다는 것은?”

예문(15)는 맹자가 문미에 출현하는 ‘盆成括’이 장차 죽게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으로 사태의 긴박함을 느낄 수 있다. 예문(16)은 의문문의 형식을 띄며 서술어인 의문사는 자체적으로 초점을 가진다. 문말 화제는 앞 대화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한편 주어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운 고대 중국어는 목적어가 문두로 주어자리에 전치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有’구문에서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병렬된 목적어 전치현상이 자주 보인다. 이때 두 대상은 비교 강조되기 때문에 일견 화제초점처럼 보이기도 한다.¹⁸⁾

(17) 臣弑其君子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滕文公下)

신하 중에 임금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18)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告子上)

18) 화제초점이라는 용어는 劉丹青·徐烈炯(1998)이 제시한 것으로 그들은 초점을 문장 안의 다른 배경성분에 비해 부각(prominent)되는지, 대화 쌍방이 공유하는 지식과 대조(contrastive)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자연초점, 대조초점, 화제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초점은 [+부각]과 [-대비]의 특성을 가지며 문미초점에 해당되고, 대조초점은 [+부각]과 [+대조]의 특성을 갖고 화제초점은 [-부각]과 [+대조]의 특성을 갖는다. 화제초점은 대조되지만 초점은 문미에 오는 평언부분에 온다. 때문에 사례(2019)는 화제초점은 실상 초점이 아니라 대조 화제를 가리키며 화제와 대조 의미를 결합하여 화제성, 즉 정보 갱신 효력은 없지만, 대조 관계를 갖는 잠재적 화제들에 의해 담화적 구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다.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공경하는 마음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예문(17~18)을 보면 동일한 서술어를 공유하는 대비되는 목적어가 청자의 주의를 끄는 수사적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목적어를 문두로 전치시킴으로 인해 문미부분인 서술어인 ‘有’에도 초점이 온다. 예컨대 (18)에서 이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장에서 처음 제시되어 대조되는 대상이지만 의미의 중점 즉 초점은 문미의 서술어에 있다.¹⁹⁾

한편 개사구가 서술어 앞뒤에서 출현하는 위치 역시 초점의 전환과 관련있다. 양세욱(2005)은 ‘以’개사구가 동사구 앞뒤에 나타나는 어순 비교를 통해 초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19) 何以廢也, 以羊易之? (梁惠王上)

무슨 까닭으로 없습니까? 양으로 그것을 바꾸지요?

(20)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 (梁惠王上)

나는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문(19)는 개사구 ‘以羊’이 동사 앞에 오는 경우로 앞부분에서 희생을 없애는 것에 비교하여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에 의미 중점을 두어 초점은 문미 부분인 ‘易之’에 있고, 예문(20)은 문미에 개사구 ‘以羊’이 위치하는 경우로 앞에서 양과 소의 크기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대상 즉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화자는 문미에 두는 성분을 조정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초점을 바꾼다.

또한 고대 중국어에서 ‘於’와 결합된 장소구는 대개 문미에 위치하지만 동작의 범위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 서술어 앞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간

19) 洪波(2006) 참조.

혹 아래와 같이 동일한 서술어 앞뒤로 모두 출현할 수도 있다.

- (21) 於此有人焉, 入則孝, 出則悌,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者, 而不得食於子. (滕文公下)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경하고 선왕의 도를 섬기고 후대의 학자를 기다려도 그대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이다.

- (22) 有人於此, 毀瓦畫墁,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 (滕文公下)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기와장을 부수고 담벼락을 발라버리면서 그대에게 음식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먹이겠는가?

예문(21)은 ‘於’와 결합된 장소구가 문두에 위치하며 특정 범위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고, 예문(22)은 문미에 ‘於’장소구가 놓여 사람이 존재하는 장소 즉 현장감이 보다 강조된다.²⁰⁾

3. 생략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장 성분은 담화맥락에서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예측 및 복원 가능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초점은 새로운 정보로서 정보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 생략은 초점표지를 부가하거나 어순을 이동하는 등 초점을 표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고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잉여적인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대 중국어에서 대화 상황에 직접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를 가리키는 1·2인칭대명사는 자주 생략된다. 특히 주어의 생략이 자유로운 고대중국

20) 戴浩一(1985)는 중국어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시간순서원리(PTS)를 제시하였다. 이는 곧 도상성(像似性) 원리와 연결되는데 사건 발생의 선후가 개념 영역 속의 상태의 시간 선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 중국어에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장소개사구는 동사 뒤에 나타나고 행위의 배경이 되는 장소개사구는 동사 앞에 나타난다.

어는 화자를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목적어의 경우 일반명사는 문미 초점의 위치에서 정보가치가 크기 때문에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반면 앞에 나온 대상을 재지시하는 3인칭대명사 목적어 之는 문장에서 자주 생략한다.²¹⁾

(23) 公孫丑問曰：“∅不見諸侯何義?” 孟子曰“古者不爲臣，不見∅。”(滕文公下)

공손추가 물었다. “제후왕을 만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신하가 되지 않으면 만나보지 않았다.”

(24) 高子曰：“禹之聲 尚文王之聲” 孟子曰“何以言之” ∅曰以追蠡∅。”(盡心下)

고자가 말했다. “우왕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낫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까?” 고자가 말했다. “追蠡를 말한 것이다.”

예문(23)에서 앞 구의 ‘不見’앞에는 청자인 2인칭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뒷 구의 ‘不見’뒤에는 앞에 출현하는 제후를 가리키는 3인칭대명사 ‘之’가 생략되었다. 특히 부정문에서 이런 현상이 강해지는데 이는 부정이 이미 초점으로 강조되므로 문미에 출현하는 구정보 ‘之’의 정보가치가 떨어져서 일 것이다.²²⁾ 예문(24)에서 ‘曰’ 앞의 주어는 대화 상대방인 ‘高子’로 생략되었고 의문사 ‘何以’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측할 수 없고 복원이 불가능한 새로운 정보인 ‘追蠡’이 초점이 되며 생략될 수 없다. 뒤따르는 나머지 부분은 앞에 나오는 질문에 포함된 전제로 언어의 경제적 사용을 위해 생략하였다.

3인칭대명사 목적어 ‘之’는 ‘使’, ‘令’, ‘請’ 등 사역의미를 나타내는 겹어

21) 魏培泉(2020)에 따르면 3인칭대명사 之는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주어자리에 오는 경우 그 대상을 중복하거나 생략된다.

22) 王力(1997:445)은 서로 대칭되는 문장의 두 번째 문장이 부정문인 경우에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생략된다고 보았다.

구조에서 피사역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자주 생략된다.

- (25) 子曰：“赤也，束帶立於朝，可使 \emptyset 與賓客言也，不知其仁也。”(論語·公治長)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적은 띠를 묶고 조정에서 서서 빈객과 더불어 말을 나눌 수는 있겠으나 그가 어진지는 알지 못하겠다.”
- (26) 使數人要於路，曰：“請 \emptyset 必無歸，而造於朝！”(公孫丑下)
 몇 사람에게 길목을 지키게 하고 말했다. “반드시 돌아오지 마시고 조정으로 나가소서.”

예문(25)는 ‘使’ 뒤에 앞 구에서 제시된 인물인 ‘赤’이 생략되었고 예문(26)은 ‘請’ 뒤에 맹자가 생략되었다. 이들 피사역주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거나 정체 확인이 가능한 대상으로 생략함으로써 청자에게 피사역주가 아니라 초점으로 전환된 행위 동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또한 ‘於’나 ‘以’로 구성된 개사구가 동사 뒤에서 보어로 나타날 경우 서술어 동사 뒤에 3인칭대명사 목적어 ‘之’가 생략되기도 한다.

- (27) 宋 \emptyset 將之楚，孟子遇 \emptyset 於石丘。(告子下)
 송경이 초나라에 가려할 때 맹자가 그를 석구에서 만났다.
- (28) 聖人有憂之，使契爲司徒，教 \emptyset 以人倫。(滕文公上)
 성인이 그것을 우려하여 계를 사도로 하고 백성들을 인륜으로 가르쳤다.

예문(27)에서 동사 ‘遇’ 뒤에는 앞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인물인 ‘宋 \emptyset ’이 생략되었고 예문(28)에서 ‘教’ 뒤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맥에 의해 백성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생략을 통해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 논항이 오는 혼란을 막고 문미에 새로운 정보인 초점을 강조한다.

이밖에 개사구 ‘以’나 ‘爲’ 뒤의 3인칭대명사 목적어 ‘之’ 역시 자주 생략된다.

- (29) 苟行王政, 四海之内, 皆舉首而望之, 欲以 \emptyset 爲君. (滕文公下)²³⁾
 진실로 왕정을 행하면 사해 안의 백성이 모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 (30)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 \emptyset 告. (梁惠王下)
 임금의 창고가 팍차있고 창고가 충분한데도 선비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예문(29)에서 ‘以’ 뒤의 목적어는 임금을 가리키고 예문(30)에서 앞에 창고가 팍 찬 상황을 가리킨다. 이처럼 이전 발화에서 언급된 정보나 담화나 문맥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경우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문미의 서술어 성분을 초점으로 부각시킨다.

IV. 맺음말

초점은 정보구조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문장에서 화자가 가장 강조하는 대상이다. 이때 초점과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화제나 전제 혹은 바탕은 구 정보 주로 주어진 정보이며 초점은 새로운 정보를 나타낸다. 초점은 기존에 크게 문미초점과 대조초점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문미초점은 주로 문미에 오는 신정보에 초점이 놓이며 대조초점은 문두나 문미에 상관없이 위치하며 구정보라도 대조의미를 갖는 경우 초점이 된다. 본고는 Lambrecht (1994)가 초점의 위치에 따라 서술어초점 구조, 논항초점 구조, 문장초점 구조로 분류한 것에 근거하여 고대 중국어의 초점구조를 분류하였다.

서술어초점 구조는 기존의 화제-평언구조에서 평언부분인 서술어에 초점이 오는 구조이다. 화자는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두에 정보량이 적고 덜 중요한 정보를 배치하고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성분은 문미에 배치한다. 논항초점 구조는 대조초점 혹은 확인초점으로 보던 것으로

23) 王力(1997:445)에서 인용.

명사구인 논항에 초점이 온다. 비교대상과 대조되어 가장 부각되는 성분이다. 문장초점 구조는 전체가 주어지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나 주어진 질문이 없이 문두에 제시되며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에 해당된다. 사건-보고문이나 제시문에 상응하며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명사구를 담화 속에 처음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초점은 초점표지나 어순, 생략과 같은 통사적 수단을 통해 구현된다. 화자는 청자에게 초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초점표지를 삽입한다. 고대 중국어에서 일반명사 목적어 논항이 다른 대상에 비해 강조될 경우 ‘是’, ‘之’와 같은 초점표지와 결합된다. 이때 단일성 혹은 배타성을 강조하는 ‘惟/唯’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초점은 문장 성분의 전치나 후치와 같은 어순 이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소위 주술 도치문은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의문문이나 감탄문에 주로 나타난다. 서술어에 담긴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자 사용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다. 또 ‘有’구문에서 뒤의 목적어 성분이 문두로 전치되어 서로 병렬되면서 수사적 효과가 배가된다. 이밖에 개사구의 서술어 앞뒤로의 이동은 모두 서술어 초점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이다.

초점은 문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 대신 예측 또는 복원 가능한 구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초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이때 생략되는 성분은 대부분 앞에 나오는 성분을 재지시하는 3인칭 대명사 ‘之’가 많다. ‘之’는 부정문, 또한 겹어문의 피사역주나 개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자주 생략된다. 이는 중복되는 대상을 생략함으로써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문미인 서술어에 초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중호, <현대중국어 ‘標記焦點’ 표현요소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제29호, 2004.
-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역락, 2003.
- 백은희, <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17집, 2005.
- 사례, <중국어의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에 대한 재고>, 《중국어언어연구》 제85집, 2019.
- 양세옥, <고전중국어의 ‘以’ 전치사구 語順과 정보구조>, 《중국어문학》 제45집, 2005.
- 溫鎖林 著, 박정구 역,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 王力 著, 박덕준, 송용준 외 역, 《중국어어법발전사》, 사탑과 책, 1997.
- 이법열, <현대중국어의 초점 표현방식>, 《중국어문학》 제55집, 2010.
- 이영호, <古代中國語 目的語 前置현상 고찰>, 《언어학연구》 제23권, 2018.
- 전영철,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제274호, 2006.
- 전영철,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제68집, 2013.
-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 著, 박정구·박종한 외 역, 《표준 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1996.
- Edwin, G. Pullyblank 著, 양세옥 역, 《고전중국어문법강의》, 궁리, 2005.
- Lambrecht, K 著, 고석주·김현강 외 역, 《정보구조와 문장형식》, 월인, 2000.
- 董秀芳, <無標記焦點和有標記焦點的確定原則>, 《漢語學習》 第1期, 2003.
- 方梅, <漢語對比焦點的句法表現手段>, 《中國語文》 第4期, 1995.
- 洪波, <上古漢語的焦點表達>, 《21世紀的中國語言學(二)》, 北京:商務印書館, 2006.

- 劉丹青·徐烈炯, 〈焦點與背景話題及漢語“連”字句〉, 《中國語文》 第4期, 1998.
- 劉丹青·徐烈炯, 《話題的結構與功能》,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8.
-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北京: 中華書局, 1998.
- 劉志剛, 〈“是、之”標志賓語前置的焦點理論考察〉, 《學術研究》 第8期, 2008.
- 梅廣, 《上古漢語語法綱要》,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8.
- 魏培泉, 〈上古漢語的零形代詞〉, 《中國語文》 第4期, 2020.
- 徐江勝, 〈試論古漢語句子的焦點和焦點的凸顯方式〉, 《安徽广播电视大学学报》 第1期, 2006.
- 周士宏, 〈從信息結構角度看漢語口語中的“主謂倒裝句”〉, 《漢語學習》 第3期, 2010.
- 周士宏, 〈從信息結構角度看焦點結構的分類〉, 《漢語學習》 第5期, 2008.
- Gundel, Jeanette K.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ed. by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9.
- Tai, Hao-Yi, Temporal Sequence and Word Order in Chinese. Iconicity in Syntax, John Haiman, ed.,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types of focus and expression ways of ancient Chinese. The focus has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topic, presupposition, or ground, as an axis of consisting of an information structure, which is the part that the speaker emphasizes the most in the sentence.

Lambrecht(1994) classified 'focus structure' into predicate-focus structure, argument-focus structure, and sentence-focus structure. This study also classified the focus structure of ancient Chinese based on the structure, mentioned above. The predicate focus structure is located in the predicate where the focus is presented with new information. The argument focus structure is located on the noun phrase which is an argument, where the focus is emphasized regardless of the sentence final and the sentence initial. The entire sentence becomes new information and focus in the sentence-focus structure.

Ancient Chinese makes use of the syntactic means; focus marker, word order shift, and ellipsis, to express the focus. In the first place, focus markers, 之 and 是 are inserted to emphasize the object components with which are contrasted. Second, the focus of ancient Chinese is also influenced by the movement of the word order shift. For example, a predicate part is pre-modified in front of the subject, or the object is pre-modified in front of the predicate part. As well, the prepositional phrase are pre-modified or post-modified in front of the predicate or in the rear of predicate. Finally, in ancient Chinese, old information is often omitted to stand out new information with high information value.

Key Words : 서술어초점(predicate-focus), 논항초점(argument-focus),
문장초점(sentence-focus), 초점표지(focus marker),
어순(word order), 생략(ellipsis).